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클레멘트 주교순교자와 성 아가타앙겔로스 순교자

루가 제12주일

성 에프티미오스 대수사

제1조,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A 211
- 주일 입당송 / 14, A 218
- 수도자 찬양송 / 85, B 267
- 성당 찬양송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B 159
- 사도경 : 고린토 후 4, 6-15 / 158, 봉독서 248
- 복음경 : 루가 17, 12-19 / 130, B 18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클레멘트 안키라의 주교순교자와 성 아가타앙겔로스 순교자

온갖 고통과 수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마다하지 않은 ‘하느님의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중 성 클레멘트 안키라의 주교순교자와 성 아가타앙겔로스 순교자를 우리 교회에서는 1월 23일 축일로 기념합니다.

사도 바울로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히브리서 11:38)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은 확실히 성인들이 살아가기에 합당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순교’라

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가혹한 폭력과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봉인된 수많은 신앙인의 순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가능 고귀하고 영예로운 모습입니다. 순교 성인들의 신앙 고백과 피흘림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의 결단과 확고함을 존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책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요한묵시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히 간직하고 있어라.”(요한묵시록 2:25)

하느님의 사랑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 말에는 사랑의 표현을 네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로 ‘스톨기’(στοργή)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본능적인 사랑을 가리킨다.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입에 있는 것까지도 빼내어 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랑이다. 부모의 희생적 사랑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의 욕심이나 자존심, 명예 때문에 자식을 오히려 희생되게 하는 잘못 된 경우도 있다.

두 번째로 ‘필로’(φίλο)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은 친구 또는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한다. 친구와의 우정, 형제 간의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경험을 가지며 서로 이해하고 아끼는 사랑이다.

세 번째로 ‘에로스’(έρως)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 즉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한다. 가슴이 설레고 나의 인생을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은 사랑,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가슴을 앓고 변민하기도 하는 사랑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에는 약점이 있다. 교육, 지식, 문화, 환경에 따라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환경과 주변의 변화에 따라 쉽게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의 유한한 목숨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다. 부모님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우정도 죽음 때문에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스톨기, 필로, 에로스 사랑은 일시적으로 사랑이 변화되기도 하며,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못하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서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요한1서 4,7-8)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느님의 사랑을 그리스 말로 ‘아가페’(αγάπε)라고 한다.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첫째로 하느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요한복음 3,16) 하셨듯이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주셨고,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몸소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둘째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 주셨습니다.”(로마서 5,8)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요한복음 3,16)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낼

☞ 3면으로 계속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트리폰 수도원장)

살아가며 영적 투쟁을 할 때, 우리가 홀로 있지 않으며 수없이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 만난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조차도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한다. 하느님께로 가는 여행에서 우리의 공동인 목표는 겸손하고 뉘우치는 마음이며, 공동의 고향은 성찬예배 안에서 발견된다. 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고, 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외롭고 낙심이 될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삶을 축하할 때도, 심지어는 죽음에 직면해서도 다른 정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을 때조차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함께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적 투쟁은 우리 모두의 공동 투쟁이며,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있다.

죽음조차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그리고 서로서로에게서 떼어놓지 못한다.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룩한 신비의 성사를 받는 순간에 누리는 이런 일치는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바로 그 일치이다. 왜냐하면 성찬예배는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길 멈추는 때이며, 이때 모든 피조물과 창조세계가 창조주의 옥좌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 하나로 연합한다.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협조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요한복음 15,26)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하느님이 왜 사랑이신가를 일일이 깨닫게 해주신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을 잘 구분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하느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우리 이웃에게 그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소 식

대교구

■대교구의회 ▷ 오는 1월 21일(월) 2019년 대교구의회가 개최됩니다. 대교구 소속의 각 성당 의회 구성원 여러분은 꼭 참석하여 우리 한국정교회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같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1월 21일(월) 12시 : 점심 식사 / 오후 1시 : 대교구 의회
- 장소 ▷ 대교구청 회의실

■겨울 수련회 취소 ▷ 1월 23일~27일 기간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개최코자 했던 주일학교 겨울수련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도 취소되었습니다. 올해 겨울 수련회를 대체할 새로운 모임 소식을 빠른 시일 안에 공지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 독립교회 공식 인정 ▷ 지난 1월 6일 콘스탄티노플 세계총대주교청에서는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과 주교회의의 구성원 대주교들이 함께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독립교회로 승인하는 서류에 서명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도 주교회의의 구성원으로 함께 서명 하셨습니다.

키예프의 새로운 에피파니오스 대주교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되시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하느님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구원과 교회의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식

- 1월 21일(월) 성 막시모스 그리스인 수사 축일
- 1월 25일(금)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축일
- 각 축일 ▷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